

STARCRRAFT
HEART OF THE SWARM

위대한 자

알렉스 어바인



위대한 자

알렉스 어바인

(환자: 병장 노르우드 도크스. 토치 세븐 소속. 해병 제4사단, 7소대. 현재 위치는 전투순양함

사이언호, 비그와르 행성 대기 궤도 상공. 임무 상황 및 의료 소견 보고 중. 짧게 말하면, 환자의

상태가 안 좋다.

얼마나 안 좋소?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다가 환자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건 피해야지. 그래도 정 불가피하면...

알겠습니다. 보고를 계속할게요. 도크스 병장에게 주사를 투여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줄 거예요. 주사 투여. 이제 정신이 좀 들 거예요. 한동안은.)

*

마치 기선 제압이라도 하듯 우린 힘차게 수송선에서 뛰어내려 비그와르 땅을 밟았다. 늘 그렇듯 한 번에 두 명씩, 1 초 간격 착지였다. 토치 세븐의 방식이다. 행성은 밀림, 밀림, 또 밀림이었다. 가끔씩 빈터나 개펄도 보였다. 우리는 그 개펄 중 한 곳에 집결하여 사이언호에서 전송한 최신 기후와 지도 정보를 확인했다. 제대로 도착했다. 연구 단지는 강에서 밀림 쪽으로 0.5 킬로 떨어져 있었다. "수업 시작하시죠, 병장님." 부하 소대원 하나가 말했다.

이 소대에서 뇌 청소를 받지 않은 건 나쁜인 것 같다. 녀석들이 하도 그 애길 하는 탓에, 가끔은 내가 하류 인생을 경험하려고 해병대에 지원한 것 같단 착각도 든다. 한번은 마 사라에서 시간 좀 보낼 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무기 사용법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소대원들에게 교수 취급을 받은 적도 있다. 이 녀석들은 가끔 애들 같이 군다. 이걸 알려 달라, 저걸 알려 달라, 이걸 뭐냐, 저건 어디에서 온 거냐.

상관없다. 내 명령을 잘 따라 주기만 하면. 실제로 소대원들은 내 명령을 잘 따른다. 그런 녀석들 스물일곱에 나 하나. 하지만 다들 소대 책임자가 누군지 안다. 빌어먹을 도크스 병장. 그게 바로 나다.

비그와르 특별 수업은 없었다. 내가 아는 거라곤 다 같이 들은 브리핑이 전부였다. 외딴 행성이며, 최근에 발견되었고, 3년 전에 저그 군단이 들이닥쳤다는 것. 2년 뒤에 군단을 몰아내고, 지금은 과학 시설이 하나 들어서 있다. 연구 인원은 약 100명. 이곳이 흥미를 끄는 이유는 이 연구 시설과 정기적으로 주고 받던 교신이 근 6개월간 두절되었다는 점이다.

궤도에서 찍은 영상에 따르면 점막의 흔적은 없다. 하늘은 위성에서 근접 촬영한 연구 단지 사진을 보면 건물이 좀 훼손되었는데,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로 보였다. 연구소는 언덕 기슭에 있었고, 파손된 구역의 언덕 쪽에는 숲을 할퀴 것 같은 자국이 나 있었다. 산사태라는 것이 우리의 추측이었다.

가까이서 봤을 때도, 달리 생각할 이유는 없었다. 산등성이의 바위와 진흙, 나무 그루터기가 파손된 건물의 무너진 벽과 뒤섞여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그와르의 밀림에 산사태가 흔히 일어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연구 단지에는 건물이 여섯 개 있었다. 임무 브리핑에서 본 설계도에 따르면 각 건물은 최소 지하

2층까지 있었다. 언덕에 가장 가까운 건물은 완전히 유실되었다. 나머지 두 개 건물은 일부분이

붕괴되었으나 지붕은 온전했고, 나머지 세 건물은 멀쩡했다. 연구 시설 전체에는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고 남서쪽으로 차량용 출입구가 있었다. 출입구에서 나온 2차선 도로는 밀림 속으로 이어졌다.

전체 면적은 2 에이커 정도. 출입구 근처에는 미사일 및 레이더 시설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 옆엔

통신탑이 부착되어 있었다.

정해진 도심 정찰 수칙에 따라 우린 건물과 방을 하나씩 빠짐없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밀너와

주베르가 화력 팀 선두에 섰고, 나머지가 엄호 대형을 이루고 뒤따랐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원들은 좁은 간격을 유지했다. 연구소에 아무도 없음을 금세 깨달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 아직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고, 일부 자동화 연구
장치가 아직 작동 중이었다. 피해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는 말이다. 그 장치들이 뭘 하는진
모르겠다. 중앙 단말기를 살펴보다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를 찾았다. 정신 활성화 효과가 있는
포자를 생성하는 어떤 흔한 식물에 대한 프로젝트였다.

연구실 곳곳에서 발견한 또 다른 특이 사항은 이상한 낙서였다. 두 개의 곡선이 곡선 꼭대기 3분의
2 지점에서 교차한 형태였다. 마치 괄호 두 개를 볼록한 부분이 맞닿게 겹쳐 놓은 모양이었다. 책상
위에 그려진 낙서는 벽까지 할퀴며 이어졌다. 몇 군데는 마치 피로 그린 것 같았지만, 첫 번째 수색
때는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언덕 근처의 건물 두 곳에서는 인간의 시신을 발견했다. 우리가 보기엔 네 구의 시신이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여기저기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

들어 보시오. 주사를 맞더니 아주 로봇이 되어 버렸군.

아까처럼 횡설수설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전문가는 당신이요, 랭그리지 박사. 그가 죽지 않고 말을 하게 만드시오. 이번 임무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

연구 단지 북쪽으로는 밀림으로 이어지는 길이 하나 있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이곳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저그 감염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곳에선 전투가 벌어졌었다. 초목이 다시 자라난 밀림에는 널브러진 전투복 조각들과 부서진 코브라가 아직 보였다. 우리 편 동료들은 밀림을 헤치며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만들고 있었고, 밀림에 숨어 있던 저그가 사방에서 뿔쳐 온 것이다. 당시의 상황이 일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앞서 정찰을 하던 주베르가 보고해 왔다. 이 격전지에서 약 100미터 전방에 협곡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는 연구 단지의 출입구 근처로 되돌아와 사이언호에 짧게 상황 보고를 했다. 또, 연구원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면 자신만의 주파수를 이용해 교신을 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햄지에게 명령해 통신탑에 접속하도록 했다. 햄지가 통신망에 접속하고 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 모두 헬멧 보호창을 열었다. 피그... 민간인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휴대용 개인 정보 수집 및 네비게이션 유닛(HPIGNU: Handheld Personal Information-Gathering and Navigation Units)의 줄임말이다. 이 피그에 따르면 대기는 안정적이었고 위험한 합성물이나 공기 전염 미생물은 없었다. 비그와르가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호흡 장치 없이도 숨을 쉴 수 있고, 저그는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밀림이 울창하니 자원도 엄청날 것이었다. *백 년 뒤에는 이곳이 이 구역의 수도가 되겠지. 거대 산업 자본이 이곳의 잠재력을 깨닫고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면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비그와르 과학 시설 연구원들은 응답하라. 나는 자치령 해병대 소속 노르우드 도크스

병장이다. 이 무전이 들리면 응답하라."

아무 응답이 없다. 나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기다렸다.

"다 죽은 겁니다." 밀너가 말했다.

"뭇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럼? 눈 씻고 찾아 봤는데 별거 없었잖아." 주베르가 말했다.

"저그는 없어진 지 일 년이 넘었고."

나는 무전을 멈추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야."

브리핑에는 비그와르의 토착 동식물이 위험하다는 정보가 없었다. 이곳은 양치류와 벌레만 가득한 폐름기 수준의 생태계였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나는 사이언호에 우리가 발견한 사항을 보고했다.

"여기는 전투순양함 사이언. 도크스 병장, 보고하라."

"별다른 건 없다, 사이언. 연구 단지에는 아무도 없다. 비그와르에 고등 생명체가 없는 거
맞나?"

"맞다."

"저그는 싹 치웠고?"

"그렇다."

"정말로 점막의 흔적이 없었나?"

"없었다. 비그와르는 깨끗하다."

"그렇다면 수색을 계속하겠다. 연구원을 발견하면 다시 보고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후송할 수송선이 필요하다."

"서두를 것 없다, 토치 세븐. 우리 긴급 정찰 임무가 생겨 지금 행성계를 떠나는 중이다."

"얼마나 걸릴 것 같나, 사이언? 우리한테 단기 수색 작전을 진행할 만한 보급품밖에 없다."

"금방 돌아오겠다. 행성계로 돌아와 수송선 보낼 준비가 되면 연락하겠다. 휴가나 잘 즐겨라, 토치 세븐. 교신을 종료한다."

"금방이라고?" 주베르가 말했다. "여기에 집 짓게 생겼네. 병장님이 학교 선생님 하시죠?"

*

나는 그 포자에 관한 연구 내용을 첨부하고, 좀 더 형식에 맞게 야전 보고서를 작성해 전송했다. 피그엔 아무 위험 정보도 감지되지 않았지만, 뭐가 중요한지 모를 땀 무조건 다 보고하는 게 내 원칙이다.

과학 시설 연구원들로부터 아무 답신이 없었기에, 우리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협곡 아래로 선명한 길이 이어졌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이동했다. 저 아래 길이 끝나는 곳에는 빈터가 있었다. 빈터 중앙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그 밑동에는 아까 본 곡선 표시가 어지러이 새겨져 있었다. 비록 낮은 가지들은 모두 잘려 나가고, 밑동이 크게 파여 없어지긴 했어도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큰 나무였다. 주위 바닥에는 무언가 정말 거대한 것이 재주넘기라도 한 것처럼 어지럽게 자국이 나 있었다. 잘려 나간 시신 조각도 보였다. 틀림없는 인간의 시신이였다.

"제가 말했죠? 다 죽었다니까요." 밀너가 말했다.

"다는 아니야." 연구원 수는 100명 정도 됐다. 발견한 시신 조각이 정확히 몇 명의 것인지 몰라도, 100명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무언가가 연구원들을 죽이고 있었다.

내 두뇌에서 전술을 담당하는 부위는 연구 단지 가장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장소까지의 지형을 분석하고 있었다. 좀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다. 빈터의 남쪽 끝에 일렬로 서 있는 나무들 너머로 물이 보였다. 꽤나 큰 호수 같았다. 협곡에서 흘러 나온 물은 그쪽으로 모였다. 빈터 북쪽과 동쪽 가장자리는 뾰뾰한 숲과 가파른 언덕으로 막혀 있었다. 연구 단지는 협곡 위에서 북서서 방향으로 약 0.5킬로 떨어져 있었다.

협곡 바닥 건너편에는 밀림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길이 있었다. 그 길은 호수 가장자리를 둘러가는 것 같았다. 건너편에 솟아오른 나무를 봤을 때, 빈터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 같았다. 그 길은 CMC 전투복을 입은 해병 여섯이 종대로 지나갈만한 폭이었고, 길 양쪽의 나무들은 만신창이 상태였다. 작은 나무들은 뿌리째 뽑히거나 지상에서 2~3미터 위치에서 잘려 나갔다. 부러진 지 얼마 안 되는 가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수액을 떨구고 있었다. 난 첸에게 자세히 보고 오라고 했고, 정찰을 마치고 돌아온 첸은 무언가 지나간 자국이 있다고 보고했다. 아주 큰 자국이었고, 네발짐승이라고 말했다. 네발짐승이라는 말이 기억난다. 왜냐하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대체 무슨 소리야?" 주베르가 말했다. 토치 세븐은 늘 그랬던 것처럼 5미터 간격으로 전투 대형을 갖추고, 무기를 겨누었다.

그 다음 상황은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부하 중 한 명이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좌표를 외치고는, 가우스 소총을 장전해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쪽으로 난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에 대해 뭐라고 했는데, 무슨 신을 말한 건진 모르겠다.

그래, "위대한 자"라는 말도 한 것 같다. 그때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사실, 울트라리스크가 밀림에서 뛰쳐나와 우리 소대 한가운데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울트라리스크를 본 적이 있나?... 망할 전차보다 크고, 더 시끄럽고, 더 빠르다. 완전무장한 해병 넷을 쌓아 올린 높이에, 길이는 또 얼마나 긴지 밀림에서 울트라리스트의 머리를 보고 싸우다 보면 뒤쪽은 숲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용의 날개가 있을 자리에는 한 쌍의 날이 달려 있다. 카이저 칼날이라고 한다. 왜 그렇게 부르는진 몰라도, 그 칼날이 뭘 하는진 안다. 한 번 휘두르면 해병의 전투 장갑이 종잇장 찢어지듯 잘려 버린다. C-14의 총신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울트라리스크를 갈겨도, 녀석의 성깔만 돈을 뿐이다. 아니. 성깔을 "더" 돈을 뿐이다. 놈은 이미 성이 나 있으니까. 울트라리스크는 하루 종일 배고프고 성이 나 있다. 놈들은 당신을 조각조각 자르고는, 당신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조각난 몸들을 마구 밟아 준다.

난생 처음 본 울트라리스크였다. 모의 작전도 해 보고, 관련 자료도 모두 봤지만, 실제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울트라리스크를 처음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놈은 죽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우리는 모든 화력을 쏟아 부었지만, 놈의 기세를 조금도 줄이지 못했다. 난 사격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무조건 몸을 숨기라고. 이렇게 트인 장소에서 소형 화기로 저런 놈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답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상의 양쪽 다리가 날아갔고, 그 다음은 머리였다. 울트라리스크가 빈터로 다 나오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음은 모리슨이었다. 칼날의 끝이 그의 몸을 관통하고는 덩불 속으로 내던져 버렸다. 벌어진 그의 전투복 사이로 벌건 게 뽀어져 나왔다. 그 다음 일은 나도 기억이 안 난다. 토치 세븐은 30퍼센트의 병력을 잃고 나서야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남아 있는 단 하나의 전형을 펼쳤다. 바로 엄호 사격을 하며 죽어라 후퇴하는 것. 우리는 협곡 쪽으로 달렸다. 울트라리스크의 몸이 협곡에 끼는 지점까지 달렸다. 놈은 추격을 멈췄고, 우린 계속 사격을 했다. 탄환이 놈의 관절이나 갑피의 틈에 명중하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

울트라리스크가 빈터 쪽으로 뒷걸음질쳤다. 놈의 포효 소리가 C-14 격발음과 뒤엉켰고, 놈은 몸을 돌려 아까 자신이 나온 곳으로 육중한 몸을 이동했다. 저기, 우릴 이 난장판으로 몰아넣은 토히가 나무에 깔려 있었다. 울트라리스크가 처음 돌진하면서 쓰러뜨린 나무였다. 울트라리스크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 밀림으로 돌아가는 놈의 발은 토히의 상반신을 완전히 갈아뭇겼다. 마치 도시락 통을 발로 밟았을 때 케첩이 튀어나오듯, 울트라리스크의 발 밑에서

토희의 살점이 사방으로 튀어나와, 붉은색 분홍색 곡선을 그리며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제서야 그 낙서가 이해가 됐다. 그건 경고였다. 적어도 우린 그렇게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그 교차하는 곡선들은 카이저 칼날 자국이였다.

교신 장치는 온갖 소리로 가득했다. 너나 할 것 없이 무슨 말들을 뱉어내고 있었고, 그 뒤로 웅웅거리는 기묘한 느낌이 있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침묵의 검은 분노였다. 수도 없이 많은 전장에 나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죽여 봤지만, 태어나서 무언가를 그냥 죽이고 싶단 생각이 든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무슨 말인지 당신도 알잖아, 베라? 당신도 거기 있었어. 당신은 그것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건 어디에나 있어. 도망칠 수가—

*

또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좀 이르긴 하지만, 다시 주사를 놓을까요?

포자에 대해선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소. 당신이 결정하시오.

저도 더는 몰라요. 주사를 놔도 괜찮을 거예요. 그는 해병이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친구는 우리가 흔히 보던 뇌 청소한 오우거가 아니란 말이지.

그는 해병이에요. 주사를 놓습니다.

*

뭐?

이제 우리의 임무는 구출 임무가 되었다. 우린 전열을 가다듬고, 부상병들에게 응급

처치를 한 다음, 전사자들을 후송할 수송선을 요청했다.

사이언호가 몇 시간 후면 행성계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수송선 요청은 거절당했다.

사이언호가 대기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울트라리스크를 처리하거나,

놈이 행성 반대편에서 어슬렁거리야 수송선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울트라가 수송선을 두

동강 내면 어찌려고? 그놈을 처리하고서 다시 연락하도록." 통신 장교가 상황을 정리했다.

'이런 제기랄.' 고도로 훈련된, 그리고 전술적인 나의 반응이었다.

나는 다시 한 번 이 말을 크게 외쳤다. 또 공격받았기 때문이다.

이번엔 울트라리스크가 아니었다. 우리를 둘러싼 숲 속에서 창이 날아왔고, 우리는

울트라리스크에게 공격받았을 때만큼이나 놀랐다. CMC 전투복으로 무장한 해병한테 어떤

얼빠진 놈이 창을 던진단 말인가? 기껏해야 창이 헬멧에 부딪혀서 귀가 좀 아프려나? 우린 제압

사격을 멈추고, 대원 네 명을 숲으로 보내 우릴 과녁 삼아 창 던지기 연습을 한 토착 생명체를

손보도록 했다.

대원들은 다 찢어진 연구복을 몸에 두른 인간 세 명을 데리고 왔다.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셋 다 횡설수설하며 무슨 "위대한 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파악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두 남자는 겁에 질려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박사를

무서워했으니까.

어떤 박사를 말하는 거지?

"반 라인!" 그중 하나가 소리쳤다. 그는 발광 상태였다. 입에 거품을 물고, 이마의 핏줄은 터질 것 같았다. 해병들이 그를 끌고 오는 동안 그는 자신의 혀를 깨물었고, 난 그를 씹서 입을 딱치게 만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부하들에게 그런 선례를 남길 순 없었다. 비록 두뇌 청소를 당하긴 했어도, 내 부하들은 짐승이 아니다. 아주 가끔은 짐승이 되기도 하지만.

"반 라인이 누구니까?" 내가 물었다.

"박사님! 어서 돌아가서 다음 차례가 돼야 돼!"

"다음 차례?"

"위대한 자의 다음 차례!" 남자는 울음을 터트렸고 피 섞인 침이 사방에 튀었다. 난 심문을 한다고 헬멧 창을 연 걸 후회했다.

난 한 발자국 물러섰다. "연구실에서 근무하셨습니까? 그 박사와 함께?"

부서관 중 하나인 블로젯 상병이 말했다. "저희한테 있는 연구소 정보에 따르면 연구소장의 이름이 게하르트 반 라인입니다. 근데 병장님, 토히는 어떻게 된 걸까요?"

"토히가 뭘?"

"협곡으로 뛰어 내려가 숲에다 총을 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난 토히가 어디로 가는지 봤다. 그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울트라리스크의 칼날로 뛰어 들었다. 이 연구원들도 똑같은 걸 하고 싶은 것 같다. 그게 "위대한 자의 다음 차례"라면 말이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박사가 있는 곳으로 갑시다." 나는 말했다.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던 여자 연구원이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당신이 책임자예요?"

"우리 소대장님이시다." 블로젯이 말했다.

그 여자가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자, C-14 소총 6정이 일제히 그녀를 겨누었다.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말하십시오." 난 대답했다.

"둘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녀는 두려운 모습이었다.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제발요."

부하 몇 명이 ㅋㅋ 웃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지만 굳이 뭐라고 하진 않았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러고는 그녀와의 거리를 조금 벌였다.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이름은 베라 랭그리지예요." 그녀가 말했다.

"베라 랭그리지."

"전 여기 수석 연구원 중 한 명이에요. 저그 점막이 생태계에 미치는 후유증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연구를 진행하던 중, 포자를 발견했어요."

무슨 말인지 깨닫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연구 보고서에 있던 포자 말입니까?"

"보고서를 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연구소를 수색했습니다. 그 포자가 왜요?"

베라는 남성 연구원들을 돌아봤다. 둘은 해병에게 둘러싸인 채, 박사에게 돌아가야 한다, 자기가 다음 차례가 되어야 한다는 말들을 지껄이고 있었다. "당신들은 몰라!" 남자 연구원 한 명이 해병에게 말했지만, 해병은 별 관심 없어 보였다.

"전 포자에 면역이에요."

"면역?" 이 말은 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연상 작용을 일으켰다. "포자가 왜요?"

"저도 아직 연구 중이긴 한데... 아, 안 돼. 당신하고 당신 부하들. 여기 도착해서 계속 헬멧을 열고 있었나요?"

난 생각을 해 보고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들도 다 감염됐어요."

*

당신도 감염됐을지 모르오, 박사.

아뇨, 전 계속 면역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 시간마다 시험하고 있다고요.

사령부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 전까진 우리 둘 다 격리 신세요.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실험을 위해선 어쩔 수 없어요. 도크스 병장은 포자에 영향을 받는 피실험자, 그리고 저는 영향을 받지 않는 피실험자. 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낼 때까지, 모두를 격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서둘러 알아내시오.

*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감염"이다. "감염이라고?!" 난 베라에게 소리쳤다.

"그냥 기술적 용어예요. 딱히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망도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거기엔 딱히 뜻이 있고요. 그 망할 포자는 뭐고, 또 무슨 영향이 있다는 겁니까?" 난 아까 울트라리스크와의 싸움이 끝나고 찾아온 이상한 느낌을 떠올렸다. 환각과 비슷하지만 좀 더 강렬한 느낌. 마치 어떤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의식이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느낌... 그 포자 때문이었나? 벌써 감염된 건가? 미약하긴 하지만 그 느낌을 여전히 느낄 수 있었다. 내 머리에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그 안에 내가 아닌 무언가가 사는 느낌. 그녀의 말은 이 임무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저도 확실히는 몰라요." 그녀가 말했다.

"병장님." 해더위가 불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우리 모두 포자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동안, 연구소 직원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들은 얼기설기 모여 있었고, 모두들 베라와 다른 두 연구원처럼 찢어진 연구복을 다양한 형태로 두르고 있었다. 연구원들 중앙에서

있는 사람만 예외였다. 그는 키가 컸고, 수염이 머리털보다 많았다. 그가 입은 흰색 연구복은 상태가 꽤 양호했다. 그리고 이마엔 그 곡선 교차 표시가 새겨져 있었다. 이마의 주름살 위로 별건 흉터가 튀어나온 게, 마치 상처가 아물지 말라고 일부러 상처를 문지른 것 같았다.

"전 게하르트 반 라인이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이곳을 침입한 불청객이요. 비그와르를 당장 떠나십시오."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을 달성하면요." 내가 대답했다.

"그 목적이란 게 뭡니까?"

"당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내가 말했다.

"그럴 순 없지." 반 라인이 말했다. "우린 지금 위대한 자를 위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저 세 명의 연구원들을—"

"안 됩니다. 같이 가기 싫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내 대원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자들을 고지대로 데려간 다음 그 울트라리스크가 돌아오기 전에 이 망할 곳을 떠날 겁니다. 울트라리스크의 밥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해를 못 하시는군! 위대한 자께선 우리를 위해 이곳에 계신 겁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능력이 닿는 데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분과 하나가 될 겁니다." 반 라인은 턱을 치켜들고, 손바닥을 가슴에 댔다. "저 역시도, 남아 있는 저의 아이들이 여행을 마치고 나면, 위대한 자와 하나가 될 겁니다."

"미친 놈." 해더위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난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 했지만, 그 말은 이미 반 라인의 귀에 들어간 후였다.

"곧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당신도 위대한 자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반 라인이 말했다.

"안 돼!" 여러 연구원들이 소리쳤다. "내가 먼저야!"

"참거라, 아이들아." 반 라인이 씨익 웃으며 말했다. "위대한 자께서 금방 돌아오시진 않을 것이다. 그분도 교감을 하셔야 하니까."

그 말이 울트라리스크 역시 포자에 감염되었다는 뜻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놈이 밀림에서 또 튀어나왔다.

난 아직도 울트라리스크가 사람들을 먹었는지는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다. 교본에는 군단이 초식 동물인 브론틸리스를 기반으로 울트라리스크를 만들었다고 적혀 있지만, 난 울트라리스크가 내 부하의 조각난 몸을 먹는 걸 봤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그 위대한 자라는 녀석이 자신의 신도들을 한 번에 한 명씩 소화시키는 것에 만족했을까? 그 녀석이 원하는 건 온갖 것이 차려진 진수성찬이었고, 숲에서 나왔을 때 녀석 앞에는 그런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었다.

과학자들, 신도들, 너나 할 것 없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토치 세븐 소대는 일사불란하게 치고 빠지고, 수풀 속으로 숨었다.

이번에는 울트라리스크가 그들을 먼저 쫓고, 그 다음 우리를 쫓았다. 놈은 신도들을

향해 돌진하며 자신의 칼날로 나무와 관목을 닥치는 대로 잘랐다. 그 녀석은 신도 중 하나를 잡고 잠시 멈추더니, 신도의 몸을 셀 수 없이 많은 조각으로 찢어 버렸다. 주위엔 나뭇잎과 피 폭풍이 몰아쳤고, 흩날리는 꽃잎이 밀림 꼭대기에서 내려온 빛 줄기에 반짝였다. 과학자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우린 잠시 사격을 중지했지만,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싹 다 쓸어 버릴 것이다.

갓 잡은 희생자, 아니 음식, 아니면 교감? 그 어떤 것도 울트라리스크를 멈추진 못했다. 고개를 든 울트라리스크의 눈에 두 명의 과학자가 들어왔다. 아니면 느꼈을지도. 그 맨 처음에 붙잡혀 온, 서로 먼저 죽겠다고 싸우던 과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친절하게도, 울트라리스크는 두 과학자를 도와 줬다. 앞뒤로 빠르게 휘두른 카이저 칼날이 그들의 몸을 갈랐고, 덜렁거리며 잘려나간 몸뚱이들이 울트라리스크의 거친 등 갑피 위로 착지했다.

또다시, 머릿속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치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동시에 울트라리스크도 머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공격하려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생각을 떨쳐내려는 모습 같았다.

행성 거주민들은 이미 이동을 멈춘 상태였다.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었다. 그 광경 위로 지도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 돼, 안 돼!" 반 라인이 소리쳤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토치 세븐." 난 무선 장치를 켜다. "울트라가 간식을 먹는 동안, 우리는 퇴각한다. 집합

장소는 연구 단지. 서둘러."

머릿속에 가득한 목소리 때문에 말을 만들어 내기 힘들었고, 내가 느끼는 기묘한 느낌은 마치 환상 속의 일 같았다. 다친 곳이 없었지만 난 피 맛을 느끼고 있었다. 그땐 밀림을 헤치고 협곡으로 돌아가느라 생각할 시간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잠깐. 다시 느껴져.

*

아니, 안 돼요. 아직 주사를 놓지 마세요. 이 상태를 관찰해야 해요.

황설수설하고 있잖소.

교감하는 겁니다, 사령관님. 포자의 영향 때문이에요.

무엇과 교감한단 말이오?

지금은 대상이 없어서 아무것과도 교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격리 상태예요. 그래서 저렇게 중얼대는 거예요.

그 말은, 주위에 포자에 감염된 다른 사람이 있다면...?

맞아요. 도크스 병장의 말처럼, 울트라리스크와도 교감할 수 있죠. 그게 확장되면 나머지 저그와도 교감할 수 있고요.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

응답하라. 응답하라. 나는 토치 세븐, 노르우드 도크스 병장. 현재 장소는 위대한 자... 뭐?

뭐지?

맞아. 연구소. 우리는 연구 단지로 돌아와 지하 깊숙한 곳으로 피신하고 소대 인원을 파악했다.

과학자들 몇 명이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줄을 맞춰 건물 안으로 행진해 들어왔다. 그 선두에는 반 라인이 있었다. 그중 어느 누구도 저그 괴물의 손아귀에서 겨우 빠져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평온했다. 하나의 몸뚱이처럼 움직였다. 베라가 교감에 대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제기랄, 저 울트라리스크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요, 위대한 자에게?" 반 라인이 조롱하듯이 물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그분의 일부가 되려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순간, 저희는 교감을 이룹니다. 하지만 한 명씩 진행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이 한꺼번에 위대한 자에게 접근하면, 느낌이 흐려집니다. 순수한 경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수업을 듣는 어린 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날 보며 웃었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걸 어떻게 알아?"

반 라인은 자신의 옆머리를 두드렸다. "난 그게 느껴집니다. 당신처럼 말이죠." 그의 태도가 거만하고 근엄하게 돌변했다. "당신의 존재가 위대한 자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분은 마구잡이로 굶주림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난 그를 썩 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이렇게 말했다. "울트라리스크의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웠나? 녀석들은 날 때부터 굶주린 놈들이고, 그 굶주림은 갈수록 심해질 뿐이야."

그는 코웃음을 쳤다. " 첫 번째 경험이 혼란스러웠을 테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당신의 잘못입니다만, 그렇다고 당신을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는 그의 추종자들을 감싸 안듯 두 팔을 벌리고 말을 이어갔다. "교감의 순수성을 압니다. 두 개의 달이 곧 다시 만납니다. 우리는 가서 순수한 교감을 다시 추구할 것입니다."

다른 말 없이, 과학자들은 들어온 순서대로 나갔다.

"베라, 두 개의 달이 다시 만나다니요?" 나는 말했다.

"아시겠지만 비그와르에는 달이 두 개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특이하다는 생각은 안 했다. "두 달 중 하나의 공전 주기가 더 짧아서 23일에 한 번씩 두 달이 겹쳐지죠. 그때가 바로 반 라인의 의식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포자만 아니었으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게 오늘이고?"

그녀가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밤이에요."

저 울트라리스크가 23일을 참고 기다렸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저 사람들은 그동안 뭘 합니까?"

"숨어 있어요." 그녀가 말을 하고는 몸서리를 쳤다. "한곳에 모여서요. 포자는 분명히 인간의 의례 행위를 관장하는 두뇌 부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뇌에 그런 부위가 있습니까?" 해더위가 물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베라가 대답했다. "포자가 그 부위에 작용을 하면 다른 정신과의 연결 통로를 만들어 줘요... 예측할 순 없지만 엄청 강력한 힘이죠."

"알았으니, 그만. 우리가 이 미치광이들을 구출해야 합니까?" 주베르가 투덜댔다. "저 사람들은 그냥 여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수송선을 요청해서, 궤도에서 핵 떨어지는 것만 구경하면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병장님?"

"아직은 안 돼." 나는 말했다. "울트라리스크가 활개 치고 다니면 후송선을 요청할 수 없어. 그리고 사이언호는 행성 표면에 접근할 수 없어. 궤도 상에서 쏘는 핵의 정확성을 믿겠다고? 핵이 울트라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날려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살아남은 토치 세븐 해병들은 잠시 입을 닫은 채 열심히 머리를 굴렸고, 결국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저 울트라리스크를 처치해야만, 여길 떠날 수 있단 말이네요."

아이거가 말했다.

"말하자면 그런 셈이지." 나는 말했다.

"제기랄." 이번엔 해더위가 말했다.

이제야 원하던 정보가 나왔군. 직접 증언.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생각에는, 저 지역 전체를 핵으로 지저 버려야 하오. 과학자든 아니든, 격리된

사람이든 아니든.

절대 안 돼요.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기회예요. 도크스 병장은 저그 생물체가 아닌데도 저그를 제어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소유닛 전술은 물론이고,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요.

좋소, 랭그리지 박사. 하지만 그걸 상부에 설득하려면, 도크스의 나머지 보고서가 필요하오. 당장.

알았어요. 일반 전투 자극제는 이제 소용없어요. 조금 다른 실험을 해 봐야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효과만 있다면.

*

"좋아, 나한테 계획이 있다." 나는 말했다.

난 이런 시설에서 압축 베스핀 저장고를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또 살아남은 부하들 중에는 사회 부적응, 전과 기록과 관계없이 똑똑한 공병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난 베스핀 저장고를 폭탄으로 만들기로 했다. 경사진 암석 아래쪽에 협곡으로 굽어져 들어가는 좁은 지점이 있는데, 그곳에 폭탄을 설치하고, 다음 번에 울트라가 빈터에서 우리를 추격할 때 양쪽 언덕을 무너뜨려 그놈을 뭉개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베스핀 저장고를 내리고, 거기에 수류탄 몇 개를 연결한 뒤, 피그를 원격 기폭 장치로 개조했다. 모든 게 두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동하여, 협곡 밑단에 위치한 틈새에

저장고를 설치했다. 그 위로는 카이저 칼날 문양이 새겨진 바위가 걸려 있었다. 울트라리스크가 폭탄과 낙석을 맞고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지에서처럼 우릴 향해 돌진하진 못할 것이다. 언덕을 올라와야 할 테니. 유일한 문제는 반 라인이었다. 그와 그의 "아이들"은 폭탄을 설치하는 내내 우리를 방해했고, 협곡 앞에 드러눕고, 인간 띠를 형성하려 했다. 그들을 멀리 떨쳐 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그들을 싸 죽인 다음 울트라리스크를 처리하자는 부하들의 공식 요청을 백만 번은 거절해야 했다.

"위대한 자여..." 그들은 되뇌었다. "위대한 자여, 저희가 갑니다."

울트라리스크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간 거지?" 해더위가 궁금한 듯 물었다.

주베르가 투명스럽게 말했다. "알 게 뭐야?"

그걸로 정리가 됐다.

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터라 해병 중 누구도 헬멧 창을 열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 과학자들이 몸소 보여 주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베라에게 물었다. "노출이 누적되었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 부분은 연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들은 베라를 되찾고 싶어 했다. 적어도 반 라인은 확실히 그녀를 원했다. 나는 해병 4명에게 연구원들을 저쪽에 격리시키고 감시하도록 했고, 반 라인은 연구원들 무리 한가운데서 그녀를 쳐다봤다. 그의 표정에는 욕망과 실망, 호기심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었다. 베라가 돌아가고

싫어 하지 않는 게 당연했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해더위가 보고했다. "이제 울트라리스크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나설 차례군." 나는 말했다.

내 계획은 이랬다. 반 라인은 자신의 의식에서 연구원을 장대에 묶어 놓곤 했다.

울트라리스크가 장대에 묶인 사람을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놈은 사람이 묶이는 시점을 알 것이다. 포자 때문이야, 그렇지? 어쩌면 이 주기에 몸이 완전히 익숙해져, 파블로프의 개처럼 미리 침을 흘릴지도 모른다. 내가 아래로 내려가면, 울트라리스크가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 난 그곳을 빠져 나와 협곡 위로 돌아오는 거다. "병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주베르가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킬 생각 없어. 내가 한다." 난 대답했다.

그렇게 내가 하게 됐다. 난 혼자 협곡 아래로 내려가, 죽은 해병대원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빈터 한가운데로 곧장 걸어 간 뒤, 장대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기다렸다. 위에서 거주민들의 비명과 외침이 들렸다. 싹 다 태워 버리고 싶은 욕구가 치솟았다. 하늘을 올려다 보니, 두 개의 달이 막 만나고 있었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먼저 느낌이 왔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오르고, 이상한 자신감이 온몸을 감쌌다. 내가 유리하다. 네놈에게 결정타를 날려 주마... 내 심장은 터질 듯 쿵광됐고,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헬멧 창을 열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았다.

놈이 시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왔다. 내 CMC 발바닥으로 놈의

발자국 진동이 느껴졌다. 그러나 난 기다렸다. 놈이 날 쫓도록 해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교감을 느껴서이기도 했다. 반 라인을 따르는 미치광이들의 윙조림이 내 머리 뒤쪽에서 들려 왔고, 울트라리스크의 포효는 마치 신의 부름처럼 느껴졌다.

그때, 녀석이 밀림에서 튀어나왔고, 난 번개같이 눈을 떴다.

그리고 번개같이 달렸다. 베스핀 폭탄을 지나치며 외쳤다. "10초 이따 폭발시켜! 10초!"

그러고는 물기에 젖은 자갈밭 위를 미끄러진 뒤, 협곡에서 흘러 나오는 냇물을 철벽거리며 지났다.

그리고 해병 전투복 입고 언덕 오르기 우주 신기록을 세웠다.

처음 달리기 시작했을 땐 울트라리스크보다 한참 앞서 있었지만, 지금 뒤를 돌아봤다간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행동이 될 터였다. 맹세컨대, 놈의 숨소리가 내 뒷덜미에 느껴졌다. 어쩌면 교감 포자의 효과였을지도 모른다. 협곡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던 대원들이 사격을 개시했다. 난 대원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자칫하면 폭발과 함께 바위에 쓸려 내려갈 수도 있다. C-14의 탄환 속도는 초당 몇 백 미터를 유지했고, 탄환이 울트라리스크 갑피에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믿지 않겠지만... 난 멈추고 싶단 생각을 했다. "위대한 자, 위대한 자, 위대한 자..."라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난 교감하고 싶었다.

하지만 폭발의 충격파가 그 욕망을 날려 버렸다. 난 날아가 땅에 얼굴을 처박았고, 그 충격으로 헬멧 창 파편이 튀었다. 난 가까스로 일어나 바위와 나무 조각이 내 주위로 더 이상

쏟아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달렸다. 그러고서 뒤를 돌아보니, 협곡에서 피어오른 연기 구름이 사방을 뒤덮고 있었다. "토치 세븐, 응답하라." 나는 말했다. "영상 식별 가능한 대원 있나?"

"지금이요?" 해더위가 말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 아래에서 사라져 가는 적외선 열 신호가 잡히긴 하는데, 아마도 폭발로 가열된 바위가 식는 것 같습니다."

"울트라리스크 말이야, 해병! 바위는 관심 없어." 나는 말했다.

"저도 압니다, 병장님. 어디 있냐, 울트라리스크야...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보이진 않는데, 저그 열 신호가 좀 오락가락해야 말이죠."

뒤늦게 깨달은 거지만,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연기는 폭풍을 예고하는 바람에 날려 사그라졌다. "잠시 대기." 소대에 명령을 내리고, 연기가 걷히는 협곡을 내려다보며 나 역시도 멈춰 섰다.

폭발로 협곡 아래쪽 3분의 1이 무너졌다. 헬멧 창을 내리지 않았다면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고막이 찢어질 만한 폭발이었다. 폭발의 잔향이 아직 저 멀리 울리는 가운데, 마지막 한 줄기 연기가 빗속에 사라졌다. 울트라리스크는 보이지 않았다.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나는 나머지 토치 세븐 소대원들이 있는 협곡 꼭대기로 마저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베스핀 폭탄의 폭발 지점이 보이지 않았다. "주베르, 확인해 봐." 난 말했다.

주베르는 오른쪽에 튀어나온 첫 번째 바위로 이동했다. 그는 바위가 폭발로 인해 약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는, 바위 위로 올라섰다. 여러 주파수를 이용해 스캔하는 게 보였다. 그는

뛰어난 정찰병이었다.

폭발의 충격으로 바위들이 움직이면서 협곡 아래에서 우르릉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주베르가 스캐너를 버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주베르 바로 뒤로 울트라리스크가 나타났다.

우리는 사격을 개시했고, 울트라리스크는 협곡 입구 쪽으로 돌진하더니 칼날을 앞뒤로 두 번 휘저어 주베르를 여러 개로 도려냈다. 그의 팔다리가 허공을 가르는 동안, C-14 탄환은 울트라리의 머리와 앞다리를 가격했다. 거주민들을 감시하던 경비병 네 명이 울트라리스크를 상대하려고 돌아섰고, 거주민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위대한 자!"를 외치며 울트라리스크 쪽으로 달려들었다. *'한 치 망설임 없이!'* 그리고 죽었다, 이런.

그 와중에 무선 호출이 떨어졌다. "토치 세븐. 후송을 알린다. 첫 착륙 지점으로 즉시 집결하라."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난 대답했다. 아까 이야기를 나눈 그 통신 장교가 아니었다. 후송은 없을 거라 해 놓고 왜 이런 교신을 보내는지 따지고 싶었지만, 그런 대화는 참모 장교에게는 아무 소용 없었다. "착륙 지점으로 즉시 이동하겠다." 다행히도 착륙 지점까지는 겨우 1킬로 거리였다.

"토치 세븐, 지금 누구에게 공격받고 있나?"

"울트라리스크."

"다시 말하라."

"젠장, 울트라리스크라고, 사이언! 전에 말한 그 울트라리스크! 비그와르가 안전해? 지금
대원들 팔다리가 사방에 널려 있어!"

통신 장교는 내 말을 무시했다. 그들은 무시하는 데 선수다. "연구원들 상태는?"

울트라가 거리를 좁혀 왔고, 이제 거의 우리 사이에 있었다. 놈이 폭발과 낙석으로 타격을
입은 게 보였다. 저그 진액이 갈라진 갑피 사이로 흘러나왔고, 놈의 왼쪽 뒷다리는 분명히 부러져
있었다. "다리를 집중 사격해!" 난 명령을 내렸다.

"무슨 소린가, 토치 세븐?"

"그쪽에 하는 말이 아니야, 사이언." 난 울트라리스크를 쏘기 시작했고, 어느새 나는
녀석과 너무 가까워져 있었다. 울트라는 반 라인의 "아이들"을 향해 몸을 치켜 세우더니, 카이저
칼날을 펼쳐 들고 그들에게 휘둘렀다. 그들은 두 팔 벌려 칼날을 맞이했다. "위대한 자!" 셀 수도
없는 외침이 별판에 그리고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같은 소리가 통신 장치에서도 들려 왔다.
몇몇 해병도 울트라리스크에게 사격을 가하며 같은 말을 했다. 난 라인을 따르는 사람들의
조각으로 뒤덮였다. 베라는 별판 가장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여차하면 연구 단지로 대피할 수 있게
울트라와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지금 전투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녀는 관찰하고 있었다.

교감을 관찰하고 있었다.

"울트라리스크가 그 지역에 있으면 후송을 진행할 수 없다, 토치 세븐. 후송을 취소한다."

후송을 못 하겠다는 점에서만큼은 지금 통신 장교나 그전 통신 장교나 의견이 일치했다.

말싸움 할 시간은 없었다. 울트라리스크가 뒤로 휘두른 카이저 칼날에 내 몸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칼날은 내 전투복 옆구리를 강타했고, 내 갈비뼈를 으스러뜨렸다. 나는 바닥에 떨어져 데굴데굴 굴렀고, 울트라리스크의 거대한 발이 내 머리 바로 옆에 내려 앉았다. 진흙과 피가 내 헬멧을 뒤덮었다. 이제 토히처럼 내 머리가 박살 날 차례였다.

하지만 울트라는 내 위를 지나 돌진하기 시작했다. 놈이 지나갈 때 난 C-14를 왼쪽 앞다리 뒤에 있는 빈 공간에 쑤셔 넣고 길게 방아쇠를 당겼다. 상처에서 진액이 뚝뚝 나와 이미 진흙투성이가 된 헬멧을 적셨다. 앞은 안 보여도, 소리는 들렸다. 놈의 분노와 고통 소리가. 녀석이 달려 나가는 기세에 난 C-14를 놓쳤고, 울트라는 내 부하들이 있는 곳을 지나 신도들 쪽으로 달려갔다. 신도들이 죽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려 왔다.

일어나서 헬멧에 묻은 진흙과 진액을 닦아내니, 울트라리스크가 자신의 가장 충직한 승배자에게 돌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위대한 자여!" 반 라인의 커다란 외침이 길게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울트라리스크가 카이저 칼날을 X자로 휘둘러 그의 몸을 8~10조각으로 분리한 뒤에도 계속 들렸다. 거짓말이 아니다. 칼날은 라인의 몸통을 교차했고, 갈리는 소리는 CMC 오디오 센서의 필터를 타고 내 신경을 불쾌하게 건드렸다.

신도들은 마치 10대 팬들이라도 된 것처럼 울트라리스크를 맞이했다. 이들에게 울트라는

가장 잘나가는 홀로 스타였다. 그들은 울트라에게 뛰어들고, 놈의 옆구리에 매달리고, 자신을 놈의 발 밑으로 내던졌다. 울트라가 신도들을 최대한 빨리 죽이는 동안에도, 남은 토치 세븐 소대원들은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신도들의 안전은 이제 안중에 없었다. 그들은 남은 탄약을 모두 울트라에게 쏟아 부었다.

그 와중에 수송선 주 조종사의 무선 교신음이 내 귀를 때렸다. "토치 세븐. 지금 약속 지점이다. 반복한다. 지금 약속 지점이다. 연구원들의 생존 상황을 '사이언호'에 보고하라."

난 일어나 C-14를 다시 잡았다. 피범벅이 된 C-14에서 울트라리스크의 자주색 피가 뚝뚝 떨어졌다. 제대로 격발이 될지 확신이 없었다.

그래도 울트라리스크는 죽어 가고 있었다.

나 역시도 곧 죽을 거라 생각했다. 온 세상이 바래 보였다.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고개를 숙이니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내가 보였다. 세계가 빙빙 돌기 시작했고, 죽어 가면서 순수한 분노로 몸부림치는 울트라리스크의 의식이 느껴졌다. 통신 장치에 뭐라 지껄였던 것 같다. 수송선 조종사도 계속 말을 하고 있었다. 나와 울트라리스크의... '정신'은 조종사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다. 아니,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내 머릿속에 그 녀석의 존재가 느껴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내 발 한쪽이 이상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전투복이 무릎 쪽 부근에서 부서지고 뒤틀렸다. 내 손목만큼이나 두꺼운 울트라 발톱이 전투복 표면에 뒤틀린 흠집을 새겨

놓았다. "날 밟고 갔어!" 나는 울트라리스크에게 말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놈은 죽느라 바빴다. 난 옆구리 쪽으로 쓰러지며, 내 피그와 부딪혔다.

"여기는 토치 세븐" 나는 말했다. 어쩌면 그냥 생각만 했을지도 모른다. "토치 세븐이 교감을 요청한다."

아니, 후송을 요청해야지. 하지만 위대한 자가 죽어 가고 있다... 어떤 생각이... 나를 대신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 바로 그 포자 때문이야. 포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진 몰라. 난 그냥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 주려는 거야. 다른 곳으로 전염되기 전에 이 함선을 돌려서 저 망할 밀림 행성을 불태워 버려. 포자야. 보이지 않는 포자. 난 감염됐어. 당신은 안전할 것 같아?

베라가 감염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지? 그녀는 교감을 하지 않는다고? 나머지 얘기를 해 주지.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주사를 놓지 마. 제발...

난 그녀를 수송선에 태웠어. 다른 토치 세븐 소대원들도. 서른 명이 죽었고, 아홉 명만이 살아 돌아왔지. 나머지 대원들은 지금 어디 있어?

잠이 들 것 같아. 베라, 베라, 저들이 나한테...

위대한 자여. 당신의 소리가 들립니다.

*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군. 저 친구가 살 수 있을 것 같소? 연구원들 중엔 생존자가 있소?

데이터가 필요하오.

데이터는 의료실에 많이 있어요. 안정화시키기만 하라고 의무관에게 말해 봤어요. 포자를

제거해선 안 돼요.

랭그리지 박사, 그 교감 포자에 면역인 사람은 당신밖에 없소.

지금까지는요.

도크스는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소.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당신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격리 중이에요. 그런데 포자가 활성화되면 격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좀 더 발달된 구역에 있는 보안 시설로 그를 데려가면, 아마도...

지금 표본이 있다는 말인데... 그거면 원하는 연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소?

사령관님, 저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랭그리지 박사, 난 당신의 명령 따윈 관심 없소. 당신이 이 포자로 뭘 하든 상관없지만,

도크스가 갖고 있는 포자로만 하시오. 현 시간 부로 사이언호는 비그와르에 핵을 투하하겠소.

사령관님, 제 말을 좀—

랭크리지 박사, 아까 명령이라고 했는데, 누구의 명령이요?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당신은 포자에 면역이란 말이지? 명령에 따라 포자를 연구한다면, 누구의 명령인지 밝힐 수 없다?

이 대화는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사령관님.

도크스가 좋은 질문을 했어. 나머지 소대원들은 어디 있소?

잘 데리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저 친구는 울트라리스크와 싸웠어. 당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그는 해병이에요. 명령에 복종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건은 도크스 병장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일이라고요. 도크스 병장은 보균자예요. 그뿐이에요. 사령부에 보고하셔도 좋아요. 비그와르는 문제없다고 하시고, 우리가 돌아가서 사용할 연구실을 준비해 놓으라고 하세요.